

1999 봄호

스물



백혈병어린이우원회

보관용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바닷가에서
 고요히 바라보는 내 생애의 길이.
 함께 사랑한 수많은 아픈 성을 거느리고
 사랑이도 나를
 애절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불면 날 돌리고
 태양이 뜨면
 잠시 불타 버리다 멈추는
 김선영 작가의 「섬」

<http://childcancer.welfare.net>

우리 모두의 2000년을 바라며



송 상 현 신임 회장
(서울대 법대 교수)

요즘 2000년을 기다리며 '밀레니엄'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에 가깝게 쓰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즉, 새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비 만들기 붐에서부터 지난 세기를 반추하고 새로운 세기를 예측해 보려는 TV 프로그램까지 사람들은 새로운 천년에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특히, 우리에게 천년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97년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빛이 드리워지지 않은 곳의 이웃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다. 함께 나누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메말라 가는 요즘에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은 모든 이의 희망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빵 중에 하나를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건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말부터 사무국에는 치료비를 걱정하는 전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버지들의 실직으로 치료비 또는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급기야는 치료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습니다. 우연히도 IMF의 시작과 함께 전개된 천사백운동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일부를 떼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건넨 천사백회원들이야말로, 이웃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꿈꾸는 이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나누는 빛으로 희망이 채색되길 바랍니다.

99년 봄, 새로운 천년을 기다리며

1999년 3월 1일자로 이순형 2대 회장에 이어 서울대학교 법대 송상현 교수가 백혈병어린이후원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선생님께

오늘, 제 어린 딸은 이 하나를 또 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조용한 시간에 머물 수가 없었고, 홀로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미안하고, 아프고, 두려워 그런 시간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치를 빼들고 신기해하는 아이 앞에서 전 너무나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네 몸 속에 튼튼하고 강한 새로운 어른 이가 자라듯이 오늘도 네 속에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강한 생명이 솟고 있기를. 아니, 네겐 그 누구보다 강한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야만 한다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어른이 됨을 흔쾌히 빌어주고 싶진 않지만, 제 어린 딸만은 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 주기를 얼마나 바라며 지내온 나날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날들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수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아름답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어른이 되어 주기를 몰래몰래 빌며 올 한해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 주었습니다. 95년 겨울이 채 풀리기 전이었습니다. 8층 병실에서 봄 아닌 봄은 힘겨워할 겨를도 없이 두려움, 슬픔, 적스러움, 안타까움 등으로 미끄러져 갔던 모양입니다. 강한 자의, 아프지 않은 자의 눈물이나 슬픔의 감정은 내 어린 딸 앞에선 감히 화려한 사치이고 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쉬 울 수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제 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겠지요. 그 와중에도 병동 8층 저편 산책로엔 하얀 싸리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새 운동화를 응급실에서 잃어버리고 여름이 오던 6월, 아빠가 사들고 온 새 운동화를 신고 그 사이에 이사를 한, 기보지도 못한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현이는 오늘 밤,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손바닥에 놓인 유치를 신기해하며 잠이 들 것입니다. 아직도 신타할아버지와 엄마를 구분 못하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심술부리고 떼쓰던 일들을 신타할아버지와 하느님과 부처님께서 알고 계심에 가슴졸이며 잠시 조용해지는 아이의 순진함에 걱정 아닌 걱정도 해보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도 살갑게 표현 한 번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8층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외래 진료때마다 정성으로, 감정적 굴곡없이 한결같이 힘이 되어 주신 구선생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다발의 꽃송이도 드리고 싶었고, 예쁜 선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내오면서도 마음같지 못했습니다. 외래 진료때마다 8층에 들러 긴 시름으로 어둡게 병실을 지키고 계실, 또 다른 저의 모습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훌쩍 돌아서는 게 늘 마음 아프곤 했습니다. 그저 그들 모두 힘껏 버텨 가며 살아 달라고 빌며 병원을 나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8층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살핌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제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귀엽고 강한 8층의 어린이 삶들에 힘과 기운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에 우리 소현이가 훌쩍 자리 예쁘게 걸음하는 날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8. 12. 31.

노소현 엄마 올림(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도 함께)

소현이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여섯살된 여자어린이입니다. 이 내용은 소현이 어머니께서 그동안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신 삼성서울병원 구형희 선생님께 드린 감사의 편지 내용입니다.



소아암 치료에 대한 질의응답

다음 내용은 지난 3월 11일 부모소모임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의료진과의 만남' 시간에 진행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Q : 아이가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대부분의 항암제 처방으로 어린이들은 구토,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체중이 감소되나 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 피디(PD),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등은 식욕이 증가하는 증상을 보여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척수검사 등의 주요 검사 시 뼈끝의 돌기를 찾을 수 없게 될 정도로 체중이 증가한다면 검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균 섭취 칼로리를 적게 해야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먹되, 탄수화물과 당분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저녁에는 소량의 식사를 하도록 하고, 되도록 간식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만이 심할 경우, 전문 영양사와 상의하여 섭취 칼로리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 아이가 처음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치료방법을 달라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방법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골수검사, 면역형 검사 등)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다가, 추후에 나온 결과를 통해 환아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시도한 치료가 어린이에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Q : 딸아이가 PD를 복용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말에 약하면 그약을 복용하면 남성처럼 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 PD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서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돌고, 털이 많아지는 등의 다소 성장기 남아의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PD를 줄이면, 이러한 부작용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PD를 오래 쓸 경우, 성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양을 조정하여 복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Q : 왜래로 싸이토크스를 맞으면서 아이의 신장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싸이토크스의 부작용과 관찰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입으로 먹거나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싸이토크스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방광에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피가 섞여 나올 때, 어린이들은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간혹,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는 싸이토크스의 부작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Q :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게 되어, 항암치료가 2주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A : 괜찮습니다. 항암치료가 2주정도 지연되는 것은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술부위는 약 2주정도면 거의 아물게 되므로, 현재 항암치료가 그 만큼 지연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 이식수술 후 면역요법을 쓴다고 들었는데, 면역요법이 어떤 치료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특히 신경모세포종의 경우 이식수술 후 남아 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요법을 씁니다. 면역요법은 아이엘 II 를 주사하여 환자의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임파구가 암세포를 제거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Q : 학교는 보내려하는데, 괜찮을까요?

A : 학교는 아동의 학습능력, 사회성 등의 발달을 위해 가급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면역력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가급적 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 학교 등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항상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수이식 후 6개월 동안도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은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만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Q : 수두, 홍역과 같은 감염에 대한 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들에게 수두, 홍역은 예방접종의 유무, 나이를 떠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소아암 환아들에게 수두감염 사망률은 20%로 매우 높습니다. 큰 어린이 경우, 홍역은 거의 없지만, 대상포진, 수두의 감염이 잦습니다. 아이에 따라 2-3번까지

재발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의 경우, 수두보다 홍역에 더욱 민감합니다. 수두, 홍역은 대부분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로 전염되므로(수두는 피부로도 전염됨) 수두, 홍역이 유행하는 봄철에는 특히 동네 소문에 귀기울이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 성장기 형제의 골수를 이식받으려 합니다. 골수공여자인 형제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A : 골수채취과정을 말씀드리면, 환자의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큰 어린이의 경우, 엉덩이뼈에서 약 1,000cc의 골수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1회 주사 주입으로 5cc의 골수를 뽑게 되므로 여러 부위에서 채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공여자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골수채취 후, 빈혈이 있을 경우를 대비, 미리 채취해둔 혈액을 수혈받게 되고, 입원하여 2일정도 휴식을 취한 후, 퇴원하게 됩니다. 공여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마취가 풀린 후 뼈근할 정도의 통증과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집니다.

의료 자문 :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안효섭 소아과장
장소 : 제일생명의 집



힘들면, 노래를 부르세요. 저 처럼요.

봄호에 꼭 맞는 이름 채송화. 새싹의 탄생으로 분주한 이 계절, 송화씨도 새로 입사한 백화점 업무를 익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밥 시시, 신입사원으로 긴장되고, 바쁜 하루였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침이슬에 갓 피어난 채송화(?) 같았다. 높은 밭까지 천송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송화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KCLF 입사 축하드려요. 실업대란기라 취직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높은 경쟁률을 제치고 입사에 골인하신 비결은?

채송화 글썄요. 제 장점이라면, 풍부한 사회경험과 명랑한 성격... 그리고 자신감, 뭐 이런 것. 많은 분야의 일을 했었어요. 금융업무, 유치원 보조교사, 민원처리, 화장품 판매까지 그래서인지 성격이 조용조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백화점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까, 저 같은 성격이 딱이었나 보죠? 정말 경쟁률은 대단하더라구요. 합격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 중에서 20명을 또 제하더라구요. 그 20명중 한사람이 안 된 것이 정말 다행이죠!

KCLF 송화씨의 기록을 보니까 83년도에 백혈병진단을 받았더군요. 16년전, 그 당시 '완치'란 지금의 취업문보다 더 좁았을텐데, 어떻게 완치를 하고 왕성한 사회활동까지 하고 있는지 비법도 듣고 싶군요.

채송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제가 큰 성공이라도 한 사람 처럼 들리네요. 83년은 제가 4살 때 였어요. 귀에서 피가 나서 동네병원을 찾았다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 치료될 줄만 알았던 그 증세에, 선생님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남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 초진을 받았는데, 백혈병으

로 나왔대요. 백혈병이라는 말에 가족은 모두 자포자기했었는데, 엄마가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결국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엔 모든 것이 열악할 때였어요. 항암치료나, 이식술이나 모든 것이 아직은 발전 초기단계였으니까요. 재발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갔고, 전 주사와 약을 끊었어요. 그 때에 비하면, 이젠 백혈병은 결코 죽음과 직결되는 병은 아닌 거 같아요.

KCLF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채송화 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백혈병은 애도 잡고, 부모도 잡는다!' .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제가 덜컥 병에 걸리자, 우선 집을 팔아 병치레를 했는데, 계속 들어가는 치료비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외가집에 맡기고 생계비와 치료비를 벌어야 했었어요. 그렇게 되자, 외할머니도 힘들셨죠. 벌어도 벌어도 빚만 늘어갔대요. 그 빚은 제가 치료를 마치고도 계속 갚아 나가야 했으니까, 그 때 저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외할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얻어 늘 장사를 하셨는데, 저도 할머니를 쫓아나가 함께 거들곤 했어요. 창피함이에요? 그런게 어딴겠어요. 저 참 씩씩해요.

채 송 화

1979년 5월 23일 생

1983년 10월 8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받음.

1986년 8월 6일 치료종결

1999년 현재 분당점 롯데백화점에서 근무.

KCLF 지난번 제일생명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채송화 제일생명의 집 아이들. 왜 그렇게 제 예전모습과 같은지, 새삼 다시 그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구요. 은이라고 기억되는데, '언니, 나도 언니처럼 화장할 수 있어요?', '나도 언니처럼 파마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하는데,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요. 어머니들이 '정말 아팠었냐고, '대견하다'라며 우시는데, 자주와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뵈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아팠었다는 걸 믿지 않으시니까, 다음에 올때는 아팠을 때, 뽀뽀 머리 사진을 가지고 올려고,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요.

KCLF 앞으로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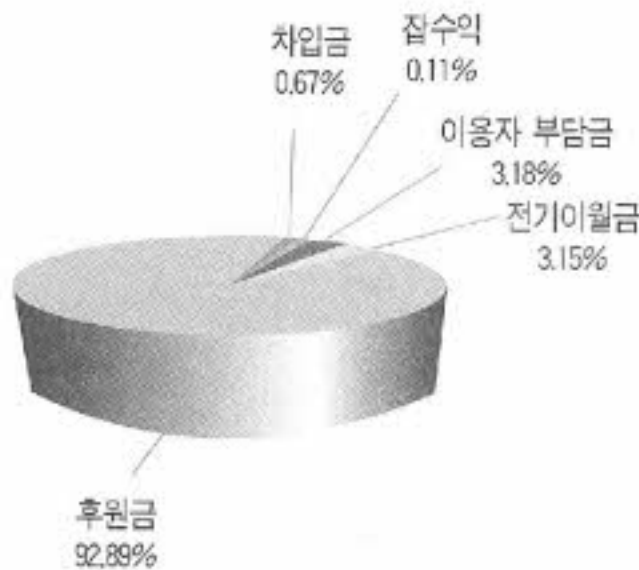
채송화 원래, 저는 이번 봄에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비용도 그렇고 잘 안됐거든요. 지금 새로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틈틈히 준비를 해, 일본유학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광가이드를 하려고요.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꿈을 아직도 꾸고 있거든요.



힘들때 눈물을 참으며 노래를 불렀던 어린 채송화, 그 송화가 부쩍 커서 우리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당차게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너희들도 언니처럼 화장도 할 수 있고, 파마도 할 수 있어, 밝게 웃고 앞을 보면서 나가면 말이야'라고, '엄마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16년전에도 전 완치에 골인했어요.' 라고, 송화씨는 또 우리에게 말한다. '노래를 부르세요, 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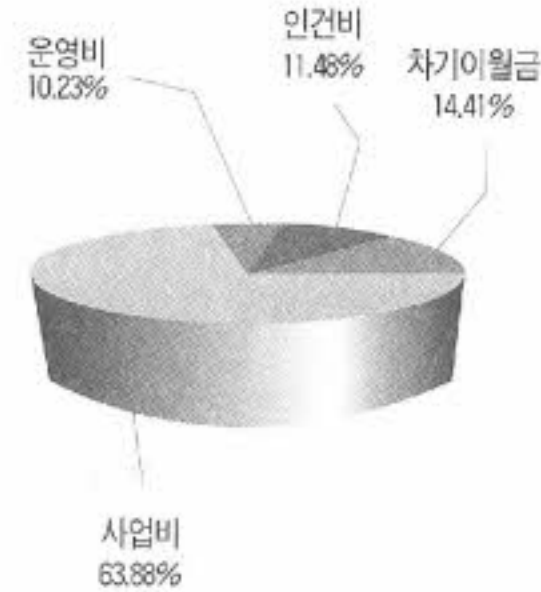
1998년 사업 보고서

1. 1998년 결산서



1) 수입 (단위: 원)

전기이월금	16,535,842
후원금	496,860,042
이용자 부담금	16,686,140
차입금	3,500,000
잡수익	573,877
합계	524,155,901



2) 지출 (단위: 원)

사업비	334,796,887
운영비	53,629,160
인건비	60,180,000
차기이월금	75,549,854
합계	524,155,901

2. 1998년 사업현황

98년 백혈병어린이후원회는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 곁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지원, 정보지원 등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시설 운영	푸른우리마을	782(명)	19,876,403	5.94
	제일생명의 집	238(가족)/1,534(일)	22,811,666	6.81
경제적 지원	진료비 지원	102(명)/724회	72,400,000	21.62
	수술비 지원	5(명)	27,695,580	8.27
	결연사업	17(명)	57,349,640	17.13
	가발지원	51(명)	17,567,440	5.25
	현혈증 지원	424(명)	22,645,610	6.76
정서 지원	푸른우리교실	2(병원)/122(회)	62,050	0.02
	캠프	44(명)	3,165,000	0.95
	완치잔치	400(명)	3,192,990	0.95
상담 사업	상담	236(사례)	322,560	0.10
자료 발간	소책자발간	700(부)	757,060	0.23
	소식지발간	4(회)/29,000(부)	6,182,170	1.85



	사 업 명	사 업 실 적	사 업 비(원)	비 율(%)
기금조성	기 금 조 성		68,139,248	20.35
지원사업	연구기관 지원		3,330,000	0.99
	부모모임 지원		6,463,250	1.93
기획사업	기 획 사 업		2,102,580	0.63
기 타	기 타		733,640	0.22
합 계			334,796,887	100.00

푸른우리마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휴양시설)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자연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휴양시설입니다. 후원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며, 특히 99년 1월과 2월에는 소아암어린이 가족과 후원자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제일생명의 집(지방환아 숙박 휴식공간)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병원근거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휴식공간입니다. 단순히 숙박시설로의 기능을 넘어 앞으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외래진료비 지원

기업체 및 기관 등에서 적립된 금액을 통해 매월 60여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외래진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

천사백운동을 통해 적립된 금액으로 통해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암 어린이를 선정, 수술을 통해 새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1회 이상 지원가능한 개인 혹은 단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암 어린이를 연결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발 지원

동남교역의 가발후원을 통해 매월 4명의 소아암 여자 어린이들에게 가발을 지원하여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헌혈증 지원

98년 개인 및 기업체, 각종 단체로부터 4,109매를 기증을 받아 수혈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무료 지원하여 수혈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책자 발간

소아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백혈병 및 소아암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한 소책자는 부모님들에게 무료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99년에는 소책자의 형식과 대상을 다양화하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색칠공부책, 교사와 형제들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보내온 고국사랑

독일 자르브뤼켄의 카이저스라우터른 한인연합교회의 하운철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고국사랑 실천의 첫걸음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정, 올 1월 800마르크 시작으로 4개월마다 800마르크에 상당한 후원금을 송금해 오고 있다. 먼 타국에서 고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헌혈증서는 벼룩시장으로 집합!

동네 어귀어귀마다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사장 주원석). 이들은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하여 5년째 잠자고 있는 헌혈증서를 깨워오고 있다. 95년 대구벼룩시장에서 헌혈증서 413매를 후원회에 전달하면서 인연을 맺은 후, 매년 천여장 이상의 사장된 헌혈증서를 모아 소아암어린이들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벼룩시장은 1월 13일, 1,356장의 헌혈증서를 후원회에 전달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벼룩시장은 5,106매의 헌혈증서를 후원회에 전달하였고, 이의 경제적 효과(1장 14,650원)를 수치로 환산하면 74,802,9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치가 나온다.



부모 소모임 일정안내

제일생명의 집에서는 정서적 지지, 정보 전달을 위해 부모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에 후원회

제일생명의 집에서 진행되는 부모소모임은 소아암환아 부모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부모는 사전 참가 신청후 참가하면 된다. 부모소모임의 프로그램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참가신청 및 문의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정민영 사회복지사 ☎766-7671〉

일 정	시 간	활동내용
4월 10일(토)	2:00-4:00	완치자와의 대화
4월 22일(목)	11:00-5:00	봄소풍 -창경궁' 벚꽃구경' /과학박물관
5월 20일(목)	3:00-5:00	가정간호
5월 27일(목)	3:00-5:00	부부간의 어려움 등 가족관계의 변화 - 강의 : 박혜영 의료사회복지사
6월 10일(목)	3:00-5:00	식사요법 및 여름철 식사관리 - 강의 : 위경애 영양사
6월 24일(목)	3:00-5:00	치료에 관한 질의.응답 - 강의 : 의료진(미정)

- 참가비는 없습니다.
- 일정 및 시간은 강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인형으로 사랑을 전해요!-인모사모

인형을 모으는 사람들의 모임 - 인모사모(회장 정정현)는 인형을 수거해 인형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모임이다. 후원회에서는 인모사모를 통해, 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아들에게 인형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1차로 삼성서울병원에 100여개와 서울중앙병원 70개를 전달하였다. 93년, 회장 정정현 씨에 의해 시작된 인모사모 활동은 현재 1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동국대 경영학과 졸업생이다. 이들은 각자 인형을 수거하여 정성들여 세탁하고 수선하여 정기적으로 보육원, 위탁시설, 병원 등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아이들이 인형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라고 소박하게 웃는 인모사모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꾸준한 사랑의 약속 - 청담회

청담동, 압구정동의 상업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모임, 청담회(회장 김동하)가 백혈병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보내오고 있다. 이들은 친목 교류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후원회를 포함해 5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월중 각 회원이 판매하는 상품을 바자상품으로 출연하여 불우노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을 앞장서고 있다. '큰 도움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청담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세번째 소책자 발간

세번째 소책자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소책자는 컬러링북으로 소아암을 진단받은 환아들이 발병초기부터 병원에서 겪게 되는 치료과정을 색칠하기를 통해 익히고, 이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문의: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정현순 간사 ☎766-7671>

푸른우리마을 소식

● 푸른우리마을 겨울초대 '푸른우리마을 어떠셨어요?'

'푸른우리마을 초청기간'인 1, 2월동안 푸른우리마을에는 환아가족 10가족과 후원자 13가족, 총 126명이 방문했다. 이용자들이 쓴 방문일지에서 환아 이유정(삼성서울병원) 부모는 '답답한 도시에만 있어 아이가 답답해 했는데, 푸른우리마을 방문으로 침체되어 있던 기분이 전환되었다'고 말했고 후원자 방순연 씨는 '언덕위에 그림같은 집에서 산새소리와 신선한 아침공기로 맞는 아침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해란씨는 '시설이 깨끗하고 조용해서 환아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자들은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적고, 불편한 사항을 체크하는 등 모니터 역할을 통해 시설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 푸른우리마을 예약금 20%

후원회에서는 푸른우리마을 예약 취소율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일부터 '예약금제'를 실시합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용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내고, 이용후 나머지 이용료를 내는 방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푸른우리마을을 이용하는 모든 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예약시 안내해 드립니다.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 오인에 (여 / 만 5 세)

신경아세포종(진단 98년 4월)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한 달전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인애를 만나러 병실을 찾아갔을 때 인애는 전날 골수검사를 받고 누워있었다. "어제 1시간 반동안 골수검사를 해서 아이가 힘이 없어요" 인애 어머니의 말을 들은 뒤에서야 전날 인애가 얼마나 힘든 고통을 참았었는지, 그리고 오늘 왜 이리 힘이 없는지 충분히 짐작되었다. 인애는 병동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활발하고 씩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수술후 회복도 다른 아이들보다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인애는 열이 계속 오르내리며 힘들어 해 부모님들의 속을 태웠었다. 인애를 괴롭히는 고열처럼 계속 올라만 가는 치

료비는 인애 부모님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되었다. 수술비를 건네 받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인애 어머니의 표정에서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인애의 병실을 찾았을 때, 다행히 지난번과는 달리 종이 접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인애가 접고 있는 색색깔의 종이꽃처럼, 인애가 맞는 다섯 번째 봄에는 완치의 노오란 빛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 고도에 (여 / 만 5 세)

신경아세포종(진단 98년 6월)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위 낙 수줍음이 많은 탓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는 도애. 어머니가 민망하셨던지 '인사 좀 해봐', '일어나봐라' 라고 말을 붙여보지만 도애의 앙다문 입은 소용이 없다. 도애의 침대 머리에 놓여있는 보라색, 초록색의 텔레토비 인형만이 도애가 다설 살박이 여자애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도애네는 얼마전 아버지가 하시던 목재수입상의 부도로, 아버지는 운전일을 위해 인천에, 오빠는 할머니집으로, 도애와 어머니는 서울에 따로 헤어져 살고 있다. 도애 아버지는 새로 시작한 운전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고액의 수술비를 마련하기란 역부족이다. 삼촌의 도움으로도 수술비

충당이 힘든 상황에서 천사백후원 지원이 결정되자, 어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도애가 수줍어 하며 인사를 건넨다. 기분이 좀 나아진 모양이다.



천사백운동에서 만난 천사

대 구백화점 잡화팀의 김상권 천사백회원은 겨울용 털모자를 59개를 보내왔다. 이 모자는 사은 기간인 2월중 2만원 이상 상품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던 모자들로, '소아암환아 돕기' 홍보를 통해 고객들이 기증해주신 것을 모은 것이다. 모자는 소아암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어린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아암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세심한 정성에 후원회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99. 2. 28. 현재)

후원가입신청 : 6,539명이 12,414구좌

실제후원현황 : 3,347명이 11,93구좌

◆ 천사백 후원자님께 알립니다.

1. 봄철을 맞이하여 이사, 퇴직 등의 변동사항이 많은 관계로 반송 우편물이 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은 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하게 접수하겠습니다.
2. 은행이나 이체금액을 변경하실 경우, 은행에서 다시 자동이체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은행별 후원금 관리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3. 혹시, 타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셨습니까? 타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이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후원회에서는 99년 1월부터 대부분의 지방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운 후원자 소개란에 있는 은행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물론, 새롭게 이체하신 후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셔야겠지요.
4. 하나 더! 지로송금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로로 후원금을 보내주실 경우 하나의 건수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즉,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100원씩 줄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수술비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석달치 지로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는 분은 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5.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천사백운동' - 후원자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천사백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후원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98. 12. 1~99. 3. 2 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신 신규 후원자)

국민은행(031-01-0414-356)

강미경 강성열 강성희 강재구 강희설 경미정 고기권 고애경 공명원
 광병삼 구선희 구자미 권혁성 김경태 김광아 김규찬 김금지 김나운
 김명숙 김미자 김보영 김사홍 김상명 김선배 김선수 김성태 김성해
 김성호 김숙희 김영근 김영실 김윤희 김은화 김재범 김재현 김정렬

김정선 김제성 김지나 김진태 김채향 김태언 김태언 김판연 김혁동
 김현상 김현주 김형점 김혜경 김효순 김희정 남금식 남순자 노정선
 류재훈 문치선 문희숙 미 경 민경선 민경환 박득규 박복남 박선미
 박성빈 박숙희 박순양 박윌임 박은정 박은지 박재균 박정은 박종양
 박종철 박준홍 박찬열 박후남 방 원 배선우 서동길 서영시 서영아
 서정순 손한성 손현주 송순정 송한현 신기선 신문숙 신범상 신순희
 신자영 신진호 심찬국 양선미 양순성 양은태 엄익철 오세진 오은경
 오재홍 왕영운 왕영진 우수귀 유기용 유덕증 유수열 유현정 유호상
 육운수 윤기성 이기형 이강수 이계일 이광례 이권구 이기영 이문주
 이미선 이미영 이병훈 이상원 이승향 이양호 이앵복 이영란 이옥경
 이용수 이윤석 이은숙 이은영 이이갑 이재복 이재현 이재화 이정민
 이정배 이종수 이준이 이진호 이천구 이철수 이해자 이해희 이희인
 임기현 임애순 임채종 임호희 장병현 장석희 장순천 전남숙 전동환
 전옥준 정구봉 정동환 정순근 정양남 정운암 정윤재 정현숙 조경희
 조성탁 조정련 조종효 주순자 주용덕 진미경 차덕호 차지영 최광춘
 최덕후 최미영 최성희 최수진 최영천 최인규 최정이 최 현 최형태
 허병철 한성환 한재종 일심희 한지현 허병주 홍계수 홍동익 홍순호
 홍정호 황연이 황용재

기업은행(090-000260-04-022)

(주)일신 (주)정본개발 강국환 강대일 강영란 강영미 강인서 구지영
 김경배 김경탁 김나운 김남수 김미영 김상희 김연정 김은미 김은홍
 김정숙 김정한 김정희 김종화 김주원 김평용 김필순 김학봉 김현숙
 남정화 노영애 대동전자(주) 류정현 박선미 박순영 박승혁 박점목
 박준우 백공흙 백용섭 손경식 손기주 손미진 송운석 송제영 송제욱
 신지훈 신지희 신행연 양명환 양성지 원선희 원선영 위수환 윤난주
 이경호 이계춘 이병대 이상언 이상호 이승훈 이운현 이재선 이점복
 이정민 이희중 임명숙 장정자 정종현 정현영 정혜경 최남규 최진주
 최창규 하정옥 한도례 한연섭 한철수 허경행 홍선애 황병훈 황성국

농협(029-01-170940)

강명심 강숙희 강용희 강유차 강태공 강한희 고희선 권세안 권옥순
 권태관 권혁선 김경수 김광명 김군수 김기수 김민경 김민기 김병규
 김셋별 김석호 김선미 김성한 김영신 김원석 김재형 김정미 김정현
 김종열 김종영 김지애 김지연 김지은 김진숙 김진웅 김진태 김진호
 김창오 김택생 김학모 김현식 김화종 남상봉 남정임 노산석 류혜경
 목남숙 문영미 문영준 문혜경 민선례 민혜정 박기훈 박말남 박보현
 박봉연 박상택 박석종 박숙엽 박순구 박은숙 박재경 박점숙 박정노
 박정민 박정호 박종연 박종한 박지윤 박지화 박철수 박태섭 박태환
 박하운 배수진 백은숙 변양순 서민홍 서선주 서한욱 성환상 손두권
 손병월 손영태 손진길 송명자 송병옥 송부홍 송지연 신미숙 신애숙
 신현진 심규옥 심우근 심장근 안경희 안병용 양금옥 양병섭 양주필
 양주현 양혜리 양희춘 여형준 염규창 오강목 오덕현 우원택 우진황
 유옥주 유주현 역사회 윤여흥 윤영옥 윤지현 윤해진 윤호경 이갑숙
 이강숙 이강우 이경주 이광록 이동완 이만수 이명우 이미순 이서복
 이성재 이양하 이영남 이영진 이옥단 이윤희 이우순 이윤희 이은수
 이재금 이재옥 이재희 이정님 이정민 이정환 이진형 이충기 이호란
 임성운 임인숙 임재룡 장국환 장덕민 장덕민 장오영 장옥희 장진희
 장효순 정만길 정미숙 정수진 정수화 정웅규 정진혁 정혜영 조경호
 조규성 조달환 조순신 조양순 조영식 조오행 조은성 조은아 조정이
 조호석 주현석조 주혜진 진지현 최경희 최길자 최대현 최리라
 최복자 최선자 최송이 최요호 최재삼 최종호 최진원 하창완 하태순
 한미숙 한익선 함영자 허인숙 허제인 홍영희 황경엽 황미숙 황순자
 황영순 황정희

대구은행(004-05-179828-001)

곽영훈 권오곤 김경구 김병석 김순택 김완수 김은주 김인혜 남홍교
 박상희 박희정 배은경 배정희 서은교 성주은 손태복 송정옥 안경분
 유병록 이경남 이경옥 이기선 이동조 이석영 전진상 정해숙 주미정
 최해선 홍문희

부산은행(070-01-021379-8)

강예구 강희순 김숙희 백운식 손혜자 우태경 이동복 이명숙 초 선

최미현 황혜경

서울은행(16508-2945601)

강옥선 강태진 고성득 구재목 김 수 김옥자 김유량 김종호 노희옥
 박석현 박영원 박옥숙 박을규 서수련 송미영 송승희 신건하 양현숙
 오성숙 윤승희 이덕용 이선영 이세성 이양수 이종화 임경자 임고운
 임미택 임한열 장명옥 최성선 최수길 한미숙 허정진 홍수열

신한은행(394-01-000694)

강호정 김규철 김병수 김수배 김우성 김재환 김충섭 김현상 노상완
 문유선 박미나 박상훈 박준양 봉정화 서문환 소신자 신미선 신재준
 안채현 양희돈 엄진희 오동호 오현숙 원경자 유은숙 이경훈 이근수
 이민주 이수완 이영호 이옥찬 이은기 이정화 이재욱 이홍창 임 호
 장윤미 정병기 조형미 진현석 천은진 최선경 편무형 함익수 홍인성

외환은행(141-22-00799-6)

김경실 김덕재 김미영 김민석 김용갑 김우진 김윤용 노정열 박경희
 박수경 박 숙 박순애 백지은 변천기 손항미 손희곤 송기상 신미숙
 심미숙 안기현 오태열 원현주 유은진 유혜숙 윤정숙 이경아 이근주
 이동훈 이맹희 이석호 이성립 이승남 이이범 이춘열 이현주 이해영
 임인규 임춘록 장영석 장오수 전선영 정연재 정익수 제연욱 조인호
 최용호 최우환 최은수 최은진 최종갑 황미선 황순만

제일은행(225-20-385050)

강귀례 강명옥 강원구 강종규 김규완 김명수 김병준 김상열 김세희
 김영미 김용섭 김재숙 김종임 김진락 김진화 김현수 박봉준 박은선
 서봉익 서태환 손동근 손영금 송청자 신명숙 신현정 안영태 양순자
 오윤진 우종남 윤미숙 이대화 이미선 이소희 이수경 이영주 이재훈
 이정훈 이지연 정미현 정석진 정성호 정재은 최보영 최승훈 최영은
 최우리 최우영 표양순 한윤경 함정림 허 전 허준현 홍완표 홍은영
 황미선

조흥은행(367-01-192434)

가순규 강신희 강오철 강전대 강희우 고광준 고기만 고희순 권용주

권용탁 김동준 김명옥 김미자 김미진 김선녀 김성숙 김수진 김승순
 김양희 김영경 김영록 김웅섭 김재남 김재한 김정훈 김정희 김청심
 김청자 김해옥 김현식 남기자 노상은 류지권 문선희 민동섭 박복임
 박상희 박숙란 박영철 박은자 박의수 박종금 박종석 박중옥 박지나
 박현주 부숙희 서경란 서석배 서영민 서인식 서정애 서한용 서희성
 손수암 손수진 손시영 송명수 신동준 신선희 신진선 심경연 심혜진
 양경희 양길종 양성길 양은미 양종민 양효정 이상하 우지연 유은정
 윤성덕 이경숙 이경화 이복례 이상달 이수영 이수정 이용범 이용복
 이원선 이윤환 이인초 이종민 이종석 이홍익 이화진 이희석 임은순
 장경애 장대근 장순성 장업 장춘봉 전은영 전은임 정금성 정연권
 조경제 조병찬 차준호 채남석 최명숙 최재혁 최재훈 한창안 한화수
 함봉진 홍경혜 황선미

주택은행(488401-01-001485)

강소연 강순오 고시작 권정환 김가현 김기연 김민수 김민호 김범
 김삼호 김연혁 김유송 김은영 김은옥 김은주 김의순 김정복 김정수
 김정애 김종승 김진상 김천규 김춘희 김학기 김학영 김한기 김한주
 김훈 노동명 노영지 문선자 박경애 박도용 박미수 서경숙 서매선
 서민철 서정민 서현주 성락춘 손성기 손수정 송미경 송미숙 송종영
 신경희 신승호 심영택 안미라 안중선 양만수 양종찬 양한승 오상구
 우진희 원종철 유성복 유장근 이경숙 이동희 이미숙 이상명 이선봉
 이순화 이연우 이영옥 이영호 이재권 이정심 이치남 이춘원 이태경
 이현정 이해정 이화순 임수만 임영숙 임주호 전성호 전영윤 정기돈
 정대룡 정락춘 정명곤 정항식 조만훈 조순미 조윤복 조철민 주동중
 채훈호 천길주 최영선 최현미 하상욱 하인숙 하태위 한상현 허영숙
 허정이 홍명석 황대식 황복진

축협(043-11-13275-816)

(주)진원산업 김명혜 김인균 김태호 박점숙 신철규 정덕용

하나은행(144-121835-00105)

곽연해 김나리 김두리 김명환 김영용 김윤희 김정희 김희정 박수현
 박정현 배상호 백상애 손미애 안진숙 유동준 유종철 이은주 최경자

최재원 한호수

한미은행(100-59711-251)

공성운수심영섭 김거부 김원태 박소희 박영복 박재세 서윤희 양미나
 이경숙 이상호 이재호 이현정 임기호 최갑순 한승우

한빛은행(112-04-112571)

고재일 고현주 김경진 김기성 김만기 김병인 김봉호 김상달 김소희
 김숙이 김신기 김영광 김영진 김영한 김운석 김원태 김유리 김윤혜
 김윤희 김은성 김은해 김은현 김정근 김종엽 김창수 김청귀 김치홍
 김태근 김한별 김현상 김형구 김혜경 김희숙 남영희 도민호 마애경
 문병선 박경연 박동언 박성은 박세철 박소현 박원숙 박재관 박점용
 박정상 박종철 박혁 박희정 배진희 백미랑 백혜숙 변혜경 서다정
 서성록 손영미 송송이 송영섭 신은진 안지연 안형민 양양숙 예덴교회
 오영순 유병선 유수원 유시환 유영완 유원상 윤광섭 윤혜숙 이강중
 이문자 이미사 이민재 이삼들 이성언 이순자 이은수 이재영 이점례
 이정희 이춘만 이태중 이해정 임동현 임미록 장순자 전미진 전선자
 전영희 전해란 전희진 정민숙 정성운 정연 정지희 정효영 정희석
 조덕희 조상진 조영주 최계자 최병환 최상희 최영우 최윤실 최혜경
 최홍복 한봉환·함은경 황용제

우체국(012989-0037222-11 온라인입금만 가능합니다.)

● 물품 후원 공고

후원회는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소아암어린이
 휴양시설인 푸른우리마을과 사무국에서는 필요한 물품
 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에 이상
 이 없는 중고품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보내주시는
 작은 기증품 하나하나가 후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사무국 : 복사기, 사진기

▷ 푸른우리마을 : TV, VTR, 문갑, 신발장, 커튼(9개),
 벽거울(3개), 벽시계(3), 실내용 슬리퍼 (20컬레)



사랑의 모음터

◆ 새로 가입한 한뜻후원자 (98. 12/16~99. 3/15)

김문정 심민규 이몽렬 김종필 정병진 장영석 송창욱 김형민 김창겸

◆ 사랑의 헌혈증 (98. 12/16~99. 3/15)

임은순(5) 김나연(8) 무 명(175) 김길환(6) 김영준(1) SK텔레콤파란대리점(20) 최경순(2)
곽근영(환아, 3) 진지현(1) 김진화(6) 조정호(9) 화랑봉사단(3) 심성혜(3)
신진욱(4) 이정준(1) 장준석(2) 김영민(1) 유형수(8) 김봉선(3) 공홍표(11) 김태훈(232)
전갑주(7) 정호원(3) 김진숙(2)

◆ 특별후원금 및 후원품

후원금

1월	레고코리아	1,240,000	배리텍(천사백후원자)	200,000
	김흥주	3,000,000	LG화재 새마음회	400,000
2월	독일한인교회	530,000	청담회	100,000
3월	정릉교회청년회	100,000	청담회	100,000

후원물품

김상권(천사백회원) 모자 59개
이혜정(1913 자원봉사자) 제일생명의 집 / 책 4권
박선희(천사백회원) 완구기증

◆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한 뜻 후 원 자 : 정서지원사업과 소아암관련 책자발간사업 후원자
(월회원/ 지로 또는 자동이체/ 후원금액 제한없음)
- 천사백후원자 : 불우 소아암환아 수술비지원 후원자 (월회원/ 자동이체/ 1구좌 1,400원)
- ※ 회원신청 및 문의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 02. 766-7671)

이번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 봄호는 경기고등학교총동창회 주최
'경기가족걷기대회'를 통해 경기동문님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송상현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사회단체등록 서울특별시의약 제208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3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시 종로구 연건
동 766-7671) 푸른우리마을(경기도 연천 0355-8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